

<http://dx.doi.org/10.17703/JCCT.2015.1.2.1>

JCCT 2015-5-1

근대공간의 장소성과 기억에 관한 연구 <서울역>, <은양민속 박물관>, <옥포조선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Placeness and Memory of Modern Space With Focus on <Seoul Station>, <Onyang Folk Museum>, <Okpo Shipyard>

배윤호*

Yoonho Bae*

요약 한국의 근대화 시기는 1920년대 식민지 시기와 1960년대 경제개발시기 두 시기 나누어진다. 근대화시기에 만들어진 공간들은 대다수 국가주도형으로 생산된 공공의 공간들이다. 이러한 근대공간들은 기능성이 강조되는 공공 생산의 장소이자 근대 국가시스템의 장소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권력 공간들 이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근대공간들은 이제 더 이상 장소적 기능을 상실한 채 모뉴먼트 건축물로 존재하며 과거의 장소정체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개념규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간이역, 발전소, 탄광, 물류창고, 폐 공장 등... 근대공간에 새로운 장소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과 장소와 기억의 문제를 영상기록 하여 근대화의 큰 특징인 사고의 변화과정과 공간에 투영된 근대적 개념들, 근대사회의 제도, 체계 수립 과정에서 장소성, 공간 속 사람들의 관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공간과 기억의 관계는 < 서울역 >에서 , 근대공간과 근대 기록의 관계는 <은양민속박물관>에서, 근대공간과 장소정체성은 <옥포 조선소>에서 찾아본다. 각 장소의 정체성과 기억의 관계는 구술목소리와 영상기록을 통하여 근대공간(장소성)과 개인구술(기억)의 모순된 힘의 관계를 알아본다.

주요어 : 장소성, 기억, 영화기록성 . 근대공간. 구술이야기

Abstract The history of modernization of Korea is divided into two folds of the colonial era in the 20's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era in the 60's. Most of the spaces buil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ere public spaces developed by the drive of the government. These spaces of modernization are functionality-oriented public places of production and at the same time, and they are the spaces of national power to symbolize the identity of national authorities. Along with changes in the society, modern spaces were reduced down to monument buildings without functionality and this requires new definition to renew the identity of modern spaces. Small stations, power plants, mines, warehouses, abandoned factories, and etc... the study has paid attention to the process of changing thought,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modernization, the relations of modern concepts projected in the spaces, framework of modern society, and placeness in the process of framework building and relations of people in the spaces with video records on the process of rebuilding new identity of modern spaces and memories of the spaces. The relations of modern spaces and memory were explored in < Seoul Station > while the relations between modern spaces and records and place identity were explored in <Onyang Folk Museum > and < Okpo Shipyard> respectively. In the relations between space identity and memory in each space, the ironic relations of power in modern spaces (placeness) and personal narrative (memories) were explored with oral narrative and video footage.

Key Words : Placeness, memory, film recording, modern spaces, oral narrative -

*정희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접수일자: 2014년 12월 5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5월 2일

Received: 5 December 2014 / Revised: 14 March 2015

Accepted: 2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yoonho8473@hanmail.net

Dept: Theater & Film Design, Chung-ang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적

장소성이란 사람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장소를 인지하는 가운데 사람과 장소 사이에 있어서 그들이 존재한 환경을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을 의미가 내재된 장소로 만드는 특성은 그 장소의 고유성과 타 장소와의 차별적 특성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장소성 개념(장소 애착, 장소의존성, 장소 정체성)중 장소정체성을 그 중심적 관점에서 근대공간과 연결 지어 보고자 한다. 이는 근대공간은 국가주도형 생산 공간으로 국가-가족-개인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장소정체성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소성이란 외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다. 장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도 관심을 가진다.(Relph,1989) 이러한 개념은 장소성이 구성원 스스로 만드는 것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다.¹⁾ 장소정체성은 자기영토에 대한 강한 욕구와 감정적 애착에 의한 장소 소속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소가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리, 경관, 도시, 감정 등의 제반형태들과 관계하고 기억, 생각, 가치 등과함께 참여동기로써 목적지가 갖는 공통된 의미와 집단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Proshansky,Fabian&Kaminoff,1983) 이런 집단적 근대공간 정체성의 강조는 오히려 개인을 집단속에 부속화하고 장식적 존재가치로 인식되어 그에 따른 개인소외와 개인적 향수(멜랑콜리)²⁾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도시화, 근대화라는 사회집변현상이 급변할 때 등장한다. 본 연구는 근대공간의 장소성과 개인의 기억의 충돌, 장소성 상실

과 장소정체성 변화에 따른 개인기억³⁾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근대공간의 장소성과 기억에 관한 연구는 근대를 기록하는 매체방법연구⁴⁾로서 근대공간인 <서울역>, <온양민속박물관>, <옥포조선소>를 중심으로 근대공간의 설립당시 기억구술, 복원당시 참여한 중심적 인물들의 구술 인터뷰와 영상기록 자료를 가지고 근대공간의 장소성과 기억을 접근하려고 한다. 연구자가 다큐멘터리 작업의 과정에서 찾았던 문헌자료들과 작업 중 만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였다. 매체적용 연구방법은 사회학자이자 영화학자 크라카우어 <Siegfried Kracauer> 『영화 이론 Theorie des Films. Die Errettung der äußeren Wirklichkeit』 과 기억에 관한 이론은 폴 리코르 <Paul Ricoeur> <기억, 역사, 망각 Memory, History, Forgetting>의 문헌자료와 구술기록의 목소리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구술사적 방법과 다큐멘터리 속 인터뷰를 최대한 살렸으며 인터뷰는 인터뷰어가 기억하는 근대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기억을 떠올리는 방식과 근대공간의 관계성을 구체적 구술행위: 구술자 목소리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구술적 인터뷰는 다큐멘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서울역>은 공간을 기억하는 자(철도승무원, 추억을 가진 승객 등 구 서울역사를 찾아온 사람들)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기억 인터뷰는 많은 기록 중 구체적 날짜가 있는 서울역 압사 사고(驛壓死事故, 1960년 1월 26일)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터뷰어와 서울역의 장소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터뷰어를 선택하였다. <온양민속박물관

1) 장소정체성은 인터뷰 과정, 작업 인터뷰 장소, 인터뷰대상 선정 등 우연성, 비결정성, 항상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터뷰 기간 7년(2008-2014)이 고 세곳의 근대공간(「서울역,2013」, 「온양민속박물관,2009」, 「옥포조선소,2014」)을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로 인터뷰 하였다.

2) 멜랑콜리(melancholy)라는 문제는 장소성의상실감과 관계가 있다. 이점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기억과 장소성,기억과 정체성을 주제화하여 인터뷰한 이유이다.

3)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의 관계를 다루어야 하나 인터뷰에서 개인기억과 근대장소성 을가지고 인터뷰를 하였다.

4) 매체연구방법은 장소성공간을 기록할 수 있는 방식에서 사진, 영화기록성이 대표적이고 근대소설의 리얼리즘 문학의 기록성도 시대상 기록성으로 중요성 있다 이점은 문학의 이야기와 영상이미지의 결합적 구조이다. 본인이 공간 장소성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그 공간에 생활하는 삶의 목소리를 기록하려는 방식은 이러한 구술사적 방법론, 오랄히스토리, 역사관에 따르고 있다.

관>은 30년 전 물품구입 장부를 발견, 실제 그 장소인 신안군 낙월도로 물품 매수자(신탁근:물품감정가, 박명도:당시 전시 총괄기획자)와 함께 물품매수 경로를 추적해 보았다. <옥포 조선소>는 조선소 용접노동자, 배를 만드는 작업자들이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옥포조선소 역사를 시낭송 총체극에 담아내면서 조선소 노동자들 스스로 회사-가족-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선소 장소와 개인의 기억을 근대공간 속에서 40년간 국가(회사)-가족-개인이 하나라는 소속감, 고유한 장소 정체성 획득하는 과정과 조선소 노동자들의 장소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중심으로, 장소의 정체성과 기억구술의 관계를 근대공간장소에서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구술행위는 카메라와 근대공간의 장소성, 영상기록 작업을 통하여 장소와 기억 구술기록의 상호관계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⁵⁾

크라카우어의 **넝마주** 이론 <Lumpensammler/rag-picker>⁶⁾은 하나하나 파편적인 이미지와 글귀, 인터뷰가 시대역사를 잘 들어내는 요소라는 것, 카메라로 지켜보아야 할 대상은 성격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물이나 포스터 글귀에서도 역사는 존재하고 있고 사물 스스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설명한다. 장소와 기억의 문제를 육체와 기억의 문제로 폴 리콰르 저서 <기억 역사 망각Memory, History, Forgetting>, <시간과 이야기 Time and Narrative (Temps et Récit), 3 vols.>⁷⁾에서는 다루고 있다. 폴 리콰르는 개인의 구술 이야기는 흔적의 치유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근대공

간에 대하여 기억 공간을 구술하는 인터뷰 모습에서 기억과 장소의 정체성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⁸⁾

크라카우어 <사무직 노동자 Der Detektivroman. Die Angestellten>와 폴 리콰르 <기억, 역사, 망각 Memory, History, Forgetting>의 이론은 구체적이지만 파편적인 인터뷰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근대 공간에서 카메라를 통해 만나는 구술 목소리를 통해 근대공간과 장소 정체성, 기억 구술과 장소 관계성을 찾아보려고 했다. 작업시기와 인터뷰한 시기는 2008년에서 2014년으로 서울역(2011~2013), 온양민속박물관(2008~2009), 옥포 조선소(2013~2014)이다. 기억으로 새로운 장소 정체성을 만드는 근대공간 <서울역 2013>, 기록으로 장소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근대공간 <온양민속박물관 2009>,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근대공간 <옥포 조선소 2014>로 나누어 진다.

II. 공간과 기억

2.1. 공간의 기록성

크라카우어는 『대중의 장식 Ornament der Masse』(1927), 『사무직 노동자 Der Detektivroman. Die Angestellten』(1930), 『칼리加里에서 히틀러까지 Von Caligari zu Hitler』(1947), 『영화 이론 Theorie des Films. Die Errettung der äußeren Wirklichkeit』

5) 우연적이고 일회적 이지만 장소성과 인물의 인터뷰 목소리는 시대 집단기억의 파편들이 들어있다. 이 점은 인류학적 방법에서 인간의 목소리에 여러 기억들이, 여러시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지금시대의 상황만 기록되어지는듯하나 나중에 다른 시대 사람이 보거나 들을 때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6) 넝마주의 < Lumpensammler/rag-picker> 베야민은 크라카우어의 초기 저서 <사무직 노동자 Der Detektivroman. Die Angestellten >(1930)를 상찬하면서 그를 "자신의 꼬챙이로 말의 조각들과 대화의 편린들을 낚아채어 무덤덤하고 고집스레 카트에 던져 넣는, 하지만 이따금 이 버려진 넝마-'인간성', '성찰', '깊이'-한두 개를 아침의 가벼운 바람 속에 별 것 아닌 듯 날려 보내는 이른 새벽의 넝마주이. 즉 혁명의 날, 이른 새벽의 넝마주이"라 불렀다.(벤야민, '국외자는 주목을 끈다') 역사-끝에서 두 번째 세계

7) 리콰르 <기억 역사 망각>, <시간과 이야기> 김한식 번역

8) 구술성에 대해 윌터 옹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우리의 자기 정체성과 관계의 실천에 중심이 되는 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술보다 인간 문화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Ong, 1977, p.22), 미디어가 말의 보전과 확장, 그리고 변경에 이용되는 방식, 이러한 이용방식과 인간의 의식 및 사고 패턴의 상관관계를 주목했다. 구술성-문자성 연구 (미디어 생태이론, 2013.02.25., 커뮤니케이션북스)

t』(1960) 나타난 영화 와 근대공간의 관계성은 영화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기록적 기능을 주목하여 영상미학적 이론을 제시 하였다. 영화관 근대공간의 자본적 시스템을 관찰하고 자본주의에서 소외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들이 처해진 상태를 들어내는데 크라카우어는 다섯 가지의 비유를 들어 - 1' 비연출적 현실, 2'우연적인 것, 3'무한성, 4'비 규정성, 5'삶의 흐름, - 영화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인위적 형식 보다는 영화는 삶을 기록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 이고, 영화는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 보는 견해이다. 이 관점은 영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1885년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열차 도착L'Arrivee d'un train la Ciotat >,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 La Sortie des ouvriers de l'usine >에도 볼 수 있다. 근대공간 (열차역, 공장)을 기록한 영상에서 장소성은 중요 요소로 찾아 볼 수 있다. 근대공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동하는 교통수단과 새로운 직업- 도시여성근로자를 보여준다. 영화의 탄생은 이동수단인 철도와 새로운 근대직업세계관, 새로운 근대인간 가치관이 변하는 시기에 근대공간에서 인간행위모습을 기록하면서 만들어지고 영화는 태어났다. 근대공간 과 움직이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은 카메라의 기계적 성격이다. 이 점에서 근대장소성은 영화의 탄생과 함께 카메라와 같이 장소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습관을 획득하였다. 이런점은 영화관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듯이 항상 장소를 보고 그 안 움직임을 관찰한다. 크라카우어는 베를린에서 <창문밖으로 바라보이는 보여지는 풍경 Aus dem Fenster gesehen > 글을 통해 근대도시공간의 특징인 문화충돌현상을, 단편글< 그림엽서 Ansichts postkarte>에서 프로이센 왕의 권위 상징인 교회와 UFA의 영화관이 같이 공존하는 근대도시공간 풍경에서 역사, 공간, 장소

성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크라카우어는 근대도시공간을 이야기 하는 매개체로 보았다.⁹⁾ 카메라는 도시공간속의- 뒷 골목길, 노동자숙소, 직업소개소에 붙어있는 연금포스터 글귀, 지나가는 여인의 옷 차림, 헤어스타일, 유행하는 조악한 장식물건에서 역사시간에 대한 성찰과 삶의 구체적 현실모습을 표피가 아닌 현실을 들어내는 것을 기록성을 보여준다. 크라카우어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 '역사-끝에서 두번째 세계 『Geschichte - Vor den letzten Dingen』 서문에서 영화에 대한 긴 여정은 존재의 이름을 얻지 못해 무시당하고 피박 받는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말하며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에 대한 관찰과 시대가 변하여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영화작업이 역사가와 같다고 주장한다.¹⁰⁾ 카메라의 기계적 기록성이 파편적 도시공간속의 근대공간 장소를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카우어는 이름 없이 버려지고, 존재의 이유와, 당위성이 없이 보이는 삶의 흔적에 대하여 역사란 그 흔적에 의한 학문임을, 영화는 흔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라 이해하였다. 근대화시기에 구체적 만들어진 근대공간- <서울역>, <온양민속박물관>, <옥포 조선소>-,에서 장소정체성과 기억 흔적을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억장소와 구술행위장소가 같게 하여 장소와 시간의 불일치를 적게 하였다.

2.2. 기억의 장소성

장소의 정체성은 기억 속에서 자신의 기억이 인지하는 기억의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다. 기억을 떠올린다는 기억행위는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감정은 존재하는데 사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기억

9) 도시공간에서 보이지않은 도시인들의 움직임, 흔적 상황들을 크라카우어가 읽기 시도 하였다고 서술한다. 이는 크라카우어의 소설<Der Detektivroman. Die Angestellten.>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보이지않은 도시읽기 이론가인 벤야민과 다른 관점은 크라카우어의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벤야민은 도시읽기를 환상, 꿈을 동원, 보들레르의 파리읽기를 시도한 반면 크라카우어는 베를린의 사회현실공간 읽기를 시도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본다 / 보이지 않는 도시 읽기 :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의 도시 단편을 중심으로 / 윤미애

10) 리얼리즘매체이론 과 역사와의관계성은 크라카우어 저서'역사-끝에서 두번째 세계 Geschichte - Vor den letzten Dingen, P23 P89-p90

하게 되는지 자문해볼 수 있다”¹¹⁾ 이 아리스토텔레스 질문은 눈앞에 존재하지 않은 사물과 상황을 기억으로 떠올리고자할 때 기억은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그 시작점은 어딘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폴 리콤프르는 「기억, 역사, 망각」에서 기억과 시간의 관계가 ‘감정개념’임을 강조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기억이란 시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억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폴 리콤프르는 기억과 장소성에 대해서 설명한바 있다. 「기억하는가? 라고 물으면 감정을 기억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감정이 생겨나게 만든 사물을 기억한다는 말인가? 만약 기억하는 것이 감정이라면, 기억하는 것은 부재하는 사물에 대해서가 아니다. 만약 기억하는 것이 사물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인상을 지각함과 동시에 현재 지각하고 있지 않은 부재하는 사물을 기억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지각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¹²⁾ 기억이란 장소성(시간성, 사물 이미지)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적 장소성을 포함하지 않는 상상력과는 구분된다. 즉 개인적 기억은 상상력이 아닌 역사적 시간을 포함함 장소성이 내재되어있는 것이다.

기억과 장소의 문제에서 기억·장소를 동시에 떠올리고 보여지는 기억현상경험은 동일한 기억 장소에서 개인의 경험의 차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 서로 다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설명한다. 기억 속에서 기억장소로 만드는 장소는 기억과 역사의 작용, 즉 상호 다원적 결정으로 귀착되는 기억과 역사라는 두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¹³⁾ 구 서울역사는 철도역사라는 기능적 공간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장소정체성이 바뀌었다¹⁴⁾. 기억을 떠올

리는 장소로써 구 서울역사는 과거(철도역) 시간성을 포함한 장소성에 개인적 기억의 경험이 겹쳐져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소성에 대한 기억의 “장소들은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이 밀접히 연결된, 잡종적이고 돌연변이를 일으킨, 두 가지성분이 혼합된 장소들이다.¹⁵⁾ 폴 리콤프르는 「기억, 역사, 망각」에서 이런 점에서 개인의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장소와 관계가 있어왔다는 것이고 육체(기억)와 공간(장소)의 관계를 기억시간과 역사공간의 변증적 관계로 해석하면서 개인의 기억장소인 육체와 공간(장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육체는 중요한 장소, ‘여기’를 이루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모든 장소들은 ‘저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공간성과 시간성의 대칭은 완벽하다. “여기”와 “지금”은 “나”, “너”, “그”와 “그녀”와 더불어 우리의 언어를 온통 차지하고 있는 지시소들 사이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와 “지금”은 사실 절대적 공간과 날짜다. 하지만, 사람들이 객관적 시간과 공간의 긴박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장소와 관련된 기억의 현상학은 처음부터 극복할 수 없는 변증법적 움직임 속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변증법적 움직임은 기하학적 공간에 대한 체험된 공간의 분리와 고유의 것과 이질적인 것을 관련지으려는 과정 전체의 상호 재-연결 사이에서 이루어진다.”¹⁶⁾

기억을 장소에서 떠올릴 때는 시간 분석과 기억 분석이 서로 겹쳐지며 이는 기억한다는 행위가 일정기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다.¹⁷⁾ 이것은 시간적 거리라는 개념이 기억의 본질적 성격이며 기억(사실)과 상상력

11) <기억, 역사, 망각 Memory, History, Forgetting>P 33

12) <기억, 역사, 망각 Memory, History, Forgetting>P 34-P35

13) 피에르 노라는 기억과 역사의 문제를 대립적 갈등 주제로 다룬다. 역사는 문자 권력에 저항하는 기억들에 대하여 기억의 복원은 역사의 수정에 해당함으로 기억과 역사는 대립적이다.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피에르 노라 Pierre Nora/ 김인중 번역 p302

14) 구 서울역은 과거 철도역사에서 2013년 <문화역 284> 복합문화공간 재 기능이 변화하였음.

15)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피에르 노라 Pierre Nora / 김인중 번역 p308

16) <기억, 역사, 망각 Memory, History, Forgetting> p34

17) <기억, 역사, 망각 Memory, History, Forgetting> p14

(환상이미지)이 원칙적인 구분을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¹⁸⁾ 기억이라는 행위자체에 장소와 시간의 흔적이 함께 공존하기에 개인적 기억 속에 항상 공간이 기억을 차지하며 물리적 육체공간 - 기억과 공적공간 - 장소정체성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다. 항상 시간과 함께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순서와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며, 이는 폴 리콕트가 설명한 기억과 장소의 관계에서 시간성-구술이야기를 개입하며 개인 기억과 역사공간을 설명할 수 있다.

III. 사례연구

공간의 장소성과 기억에 관한 연구는 근대공간에 새로운 장소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과 장소와 기억의 문제를 구술기록하여 근대화이론의 큰 특징인 사고의 변화과정과 공간에 투영된 근대적 개념들, 근대사회의 제도, 체계 수립 과정에서 장소성, 개인 기억의 장소성들의 관계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근대공간과 기억의 관계는 <서울역>에서, 근대공간과 근대기록의 관계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근대공간과 정체성의 변화는 <옥포 조선소>에서 찾아본다.

각 장소의 정체성과 기억의 관계는 구술목소리와 문헌기록을 통하여 근대공간과 개인구술(기억)을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터뷰어(육체)의 구술(기억) 속에서 장소성(역사시간)과 개인의 장소(기억)이 변증법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각 근대공간에 나타난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서울역

구 서울역은 인터뷰를 통해서 기억과 구 서울역사 장소정체성을 같이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의 공간경험을 설명하려는 구술이야기를 보여주었다.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은 '서울역 압사 사고¹⁹⁾'에 대한 인터뷰이며 이를 통해서 기억과 장소의 상호 재연결성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

째 인터뷰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인터뷰이며 이를 통해 근대공간의 기억이 새로운 장소정체성 획득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1. 서울역 인터뷰

Table 1. Interview in Seoul Station

항목	날짜	장소	대상
①구술 이야기 (인터뷰)	2011. 09.05	복원한 구 서울역사 계단 입구	할아버지 (당시 압사사고 학생)
	2011. 09.25	복원한 구 서울역사 중앙홀	옛 승무원 (당시 개찰구 검표원)
②구술 이야기 (인터뷰)	2011. 09.06	복원한 구 서울역사 3등 대합실	할머니

①구술이야기(인터뷰)-1

날짜: 2011.09.05

인터뷰장소: 복원한 구 서울역사 계단 입구

대상자: 할아버지(당시 압사사고 학생)

“그렇지. 그 당시 전라선이 단선이었기 때문에 밤새 내려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인 천안역에 내려서 우동 한 그릇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완행열차였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지요. 개찰구에서 개찰을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표 체크를 역무원 손으로 일일이 해야 했기 때문에 체크를 못 받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조명도 있고 시스템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2,3군데에서 개찰을 했기 때문에 인파가 한꺼번에 나가버리니깐 경황이 없지. 눈도 많이 와서 미끌거리지, 밀려 내려가서 압사를 당하게 된 것이지, 쭉구려 앉아 있다가 압사를 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역무원들도 예측을 못했지요. 감당을 못하니깐. 제어하는 사람도 없었고 힘 없는 노인들은 거의 압사를 당했어요.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라 살아남은 것이고요. 제가 다섯계단 정도에 있었고 그 앞사람들은 깔려 죽었지요. 그 이후 개찰

18) <기억, 역사, 망각 Memory, History, Forgetting> p36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시간, 장소의 불일치성 이다.

19) 서울역 압사 사고 (驛壓死事故) - 1960년 1월 26일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러던 승객들이 서울역 계단에서 집단으로 넘어져 31명이 압사하고 3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이다.

구는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진 찍는 사람도 없었고 참 옛날이라 낙후되었기 때문에 조명도 없고 방지해야 하는 조치도 없었지요. 내가 39년생인데 그 당시에 지금에 나이였다면 벌써 깔려 죽었을거예요.
쓰라린 기억이었지요.”

① 구술이야기(인터뷰)-2

날짜: 2011.09.25

인터뷰장소: 복원한 구 서울역사 중앙홀

대상자: 옛 승무원(당시 개찰구 검표원)

“압사 사고 날 내가 서울역 개찰구에서 근무를 했고 차표를 끊어서 내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서울역 압사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기차를 타려고 친막에서부터 땅바닥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번째 계단부터 네번째 계단까지 단체로 일어나는 바람에 넘고, 넘고, 넘고 해서 눌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사람을 그 추운 곳에서 앉아만 있게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니 한꺼번에 자빠져 버린 것이지요. 그 열차가 목포행 완행열차였어요.”

“기차가 호남선, 경부선이 다른데요. 손님을 바라 보았을 때 어떤 지역에서 왔구나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57,60년도에는 식순이(식모), 공순이, 공돌이(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서울로 상경했죠. 그냥 무작정 오는 거예요.”²⁰⁾

인터뷰어는 구 서울역사 기억과 역사시간(사건)을 장소의 정체성과 함께 떠올리며 그때의 시간, 사건을 구술하였다. 인터뷰 특징은 서울역 사건장소 3등석 계단에서 기억해 내었던 점이 공통점이다. 폴 리코르가 육체(기억)와 공간(장소 정체성)이 상호 재-연결 함께한다는 것의 사례이다. 3등석열차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기억과 근대 공간(역사)구술이야기는 사고 당시 계단에서 넘어져있었던 학생과 개

찰구 검표원이었다. 같은 시간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지점과 기억 방식 구술방법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도 다르게 구술하였다. 각기 사건을 다르게 이해한 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시간경험과 함께 근대공간인 서울역 장소기억의 정체성으로 구술하였다.

이 구술이야기에서 육체(기억)와 공간(장소)의 관계에서 나타난 기억과 역사의 변증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② 구술이야기(인터뷰)

날짜: 2011.09.05

인터뷰장소: 복원한 구 서울역사 3등 대합실

대상자: 할머니

“초등학교 때 목포에서 바로 옆집 살던 아저씨와 연결이 되는 바람에 비오는 날 이후로 서울로 온 거예요. 6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이를 가졌고요. 그 때의 기억이 아련해서 서울역에 와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기란 그 당시 몰랐던 이 소중함을 현재에 많이 느끼고 살아요. 서울역은 아버지에요. 이 대합실이라는 공간이요. 오늘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한번 와본 거예요. 이 대합실. 비가 추적추적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대합실에서 자식들과 아버지가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발돋움 했던 공간.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아버지사진을 가지고 서울역을 보여줌)²¹⁾

“아버지는 4남매를 두셨어요. 하나같이 철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아버지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은 50년대에 왔어요. 그 당시 나무를 케고 있었는데 차에서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깐 아마 4.19 이후 쯤네요.” “질박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서울역을 보면서 항상 고마움과 애련함을 받아요. 목포의 완행열차를 타고 밥을 새가며 서울역으로 온 기억이 나요.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했던 기억도 나고요. 과거,

20) 서울 도시 이주화 현상이 60년대, 70년대 있었으며 서울역은 그 서울 도시 집중화의 중심이었다.

21) 기억을 불러내는 장소 구 서울역사에서 아버지사진을 가지고 와서 복원된 서울역을 보여주는 행위는 주술적이지만 동시에 구술적 이야기의 힘을 가진다. 영정사진을 가지고 가는 행위 이와 같을 것이다.

현재, 미래는 서로 공존해야 하는 것인데 다 부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억은 소중한니까요.”²²⁾

인터뷰어는 죽은 아버지를 함께한 경험시간을 복원한 구 서울역사 근대공간에서 아버지의 기억을 찾으려하였다. 구 서울역에서 역의 물리적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기억의 복원장소로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의 기억 경험과 만나 새로운 장소정체성이 생겨난 것이다. 인터뷰어(할머니)에게 서울역은 아버지인 것이다. 장소성이 아버지 시간경험을 만나는 근대공간 안에서 시 공간의 공존의 가능성, 근대공간이 기억과 새로운 장소로써 장소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인 것이다.

3-2. 온양민속박물관²³⁾

한국인의 인생과정을 통일된 개념으로 적용한 온양민속박물관은 삶의 다양한 형태들이 재 배치되어 있고 한국인의 삶의 생활모습, 한국인의 일생을 연대기적 구성으로 공간연출이 되어있다. 1975년 온양민속박물관 설립준비를 위해 물품매수기록에 나타난 기록경로를 추적하여 신안군 낙월도로 가는 여정을 재 구성하여 기록하였다. 이는 사물이 박물관까지 오는 경로를 역 추적하여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사물(물품)의 이야기, 사물(물품)의 근원인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자 하였다. 국가를 대변하는 그 시대의 정책, 사회적 정체성을 대한뉴스의 목소리를 통해 읽을 수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박물관의 설립근거 및 과정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 온양민속박물관 인터뷰

Table 2. Interview Onyang Folk Musium

항목	날짜	장소	대상
①미디어 (대한뉴스)	1966.05	대한뉴스	국가정책, 홍보영상
②구술이야기 (구술 설명)	2009.08.10	온양민속박물관	신탁근, 박물관설명
③구술이야기(인터뷰)	2009.08.27	낙월도 식당 안	박명도, 신탁근
④구술이야기(인터뷰)	2009.08.28	낙월도 밭, 최내비 집, 숙소	농부 최내비, 신탁근
⑤구술이야기(인터뷰)	2009.09.10	종로구 낙원동 마산아구찜	박명도, 신탁근

①미디어 목소리(대한뉴스)

날짜: 1966.05

대상: 정책 방송

대한 뉴우스

- 중단 없는 전진을.....-

높이 27m, 폭 127m의 산허리를 절단해서 2km의 우회전 하천을 직선으로 끌어냄으로써 인근 농가의 침수를 방지하며 23정보의 농지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는 산업의 근대화를 이룩하고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단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을 빠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국민들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2) 동일 장소에서 시간의 단양한 공존성은 도시공간의 중요한 장소정체성을 유지한다. 근대공간이 다른 장소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이런 장소보존성과 새로운 장소정체성 변증적 관계이다.

23) 1975년 온양민속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이듬해 공사에 착수, 1978년 10월 25일에 개관하였다. 대지 2만 5000평, 건평 3,300평의 이 박물관은 제1·2·3·4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제1 전시실에는 한국인의 일생 및 의·식·주, 제2 전시실은 생업(生業), 제3 전시실은 민속풍예·민간신앙과 오락·학술과 제도, 제4 전시실은 특별전시실로 민화실과 불교 회화실·퇴호유물실로 되어 있으며, 총 1만 7000여 점의 민속자료가 소장·전시되어 있다. 그밖에 야외전시장에는 석조미술품과 토속가옥·방앗간·정자·장승 등을 복원해 놓았다. 또 도설 《한국의 민속》 《민속도록》 《한국의 벼루》 등이 있고, 시청각 자료로 슬라이드 필름도 있다. <출처; 두산백과>

- 대통령 고속도로시찰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힘차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황을 시찰했습니다. 설길을 뚫어 가는 고속도로, 이도로가 하루빨리 개통 되서 서울 부산 간을 단숨에 달리게 될 때 우리의 경제 발전 속도는 더 한층 빨라 질 것입니다.

- 60년대 어느 정도 공업화의 기반을 닦아놓은 터전에다가 농촌에서부터 일게 시작한 잘살기 운동의 새바람은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환경개선 작업에서 그 열기를 뽐는 여기에는 물론미래를 내다보는 확고한 시도 이념과 전 국민의 호응 이 있던 것.

- 가정의례준칙으로 허례허식 배격하자.

한국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역사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 식민지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속박물관의 대부분의 출발은 식민지를 경영하던 시대에 식민지의 관리 와 민속학적 정치 지리학적 학습의 효과로 출발할 경우가 많다. 그것도 유럽 1800년대(훔볼트의 자연사 연구)와 1920년대 민족사회주의 24)이름으로 독일에서 출발한 민속학이 정치적 측면이 많이 포함 돼 있다. 일제시기 일본이 영상사진 기록 <일본은 식민지시절 영상 인류학적 방법 사진촬영을 하여 한국인이 일본에 비하여 열성 존재를 증거로 사진 기록을 남겼다.>을 통하여 일본인 지배논리의 우생학적 표본을 만든 것도 같은 민속학을 정치적 수단으로 적용한 예인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민속²⁵⁾이라는 보고서작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1970년 초 온양민속박물관 설립시기는 국가경제 시스템이 중화학 공업으로 바뀌면서 조선, 철강, 고속도로, 철도 등 많은 것이 바뀌는 시대였으며, 새마을 운동²⁶⁾이라는 근대화의 과정 이었으며, 마을의 주거환경까지 바뀌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새마을 운

동 당시 주택 계량사업과 가정의례준칙 등으로 마을 공동체 생활공간의 계량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3가지(계량화, 규격화, 표준화)측면에서 생활공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집단적 마을생활건축물이 시스템화 하여 복제 되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해안가에서 산간지역이 동일하게 새로운 근대의 농어촌의 모습을 가지고 근대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잘사는 농어촌, 새로워진 농어촌, 도시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이라는 근대국가 이데올로기가 기존의 농어촌 시스템을 근대화, 기계화 하였다. 이러한 근대이념의 실천은 옛 마을공동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데서 출발한다.그 역사배경에는 스탈린 사회주의 시절 <기계화이미지 와 생산량증가의 상징> 공장 트랙터로 농어촌 바뀌는 이미지를 보여준 영화 (예이젠 슈타인 영화 <낡은 것과 새로운 것 (Старое и новое «Генеральная линия», 1929 기계화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주의 국가시스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가 한국에서는 1970년대 2차 경제개발 계획과 같이 농어촌계량사업과 댐건설 발전소, 경부고속도로 등 전 국토가 변화하는 시기이며 농어촌 생활기구들과 집 천정에 매달리던 농기구들이 새로운 주택구조에서는 보관할 수 없어 모두 밖으로 버려지며 새로이 노동력을 제시하는 트랙터로 기계화 영농 시기, 새로운 농어촌의 모습을 강조하는시기였다. (당시 1960년대 대한뉴스는 잘사는 농촌,기계화된 농어촌을 주체화 하였다.) 당시 대한뉴스 목소리는 국가를 정책 및 시대상을 대변하였다.²⁷⁾

돌담과 초가집은 구 생활풍습의 상징 이고 좁은 오솔길 은 신작로에 내주었다. 흙으로 만든 장독대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 자연소재 생활물건이 화학 산업 생산물로 대체되었다. 자연소재의 물건들과 농기구 생활 용품들은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 되며 잊혀 갔다. 새로운 것, 근대 의 가치가 일상을 지배하

24) 우생학적 근거를 민속학적 측면에서 제공하여 식민지배 논리를 만들고 강화하려는 지배국가에서 민속학을 장려하였던 시기 에 민속박물관은 많이 만들어진다. 특히 민족사회주의 시절 독일에서 많이 등장 했다.

25)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조선민속학회론을 중심으로(2008, 남근우 P56

26) 시멘트가 마을 단위로 배달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성을 동원하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운동이었다. 물질적인 지원과 업적 평가와 포상 모두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마을은 자발적 주민 동원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였다. (..중략..) 새마을운동은 근대화운동의 주체를 마을로 설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자치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들의 새마을운동, 김영미 p339-p340

27) 당시 대표적 기계적 목소리로 프로파간다 목소리라 볼 수 있다. 상호대화적인 인터뷰 목소리 (우연적, 비결정성, 개인목소리)와는 다른 반복적, 기계적, 획일적 일방적 목소리인 것이다. 기계목소리와 다른 장소의 목소리는 개별화, 개인적 기억의 목소리이다.

는 시기였다. 온양민속박물관은 이 시기에 버려진 것을 다른 가치로 바라본 이들이 만든 민속박물관으로 더 이상 생산적 기능에서는 기계화 영농과는 비교 되어질 수 없는 초라한 사물들(손 지게, 조리 등) 삶의 흔적을 구체적 한국인의 삶의 시간형태에 재배열 하여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시도인 것이다. 재배열, 재배치 행위는 기존 식민사관에서 민속박물관을 만드는 형식과는 다른 태도였다. 사라진 것을 보호하고 역사경험 시간을 후손에게 남기려는 교육적 측면이 강하였다. 급변하는 시대, 근대이념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인 정체성 위기의식이 온양민속박물관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전통적 민속박물관의 탄생 논리인 식민지 지배논리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자구책으로 재해석 되는 과정이었다. 기억과 아카이빙의 존재 방식에 재기억 장소로써 온양민속박물관이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동시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고정화하여 지키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생활흔적 물건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러한 박물관을 시대역사 속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시대가 급변한 변화 속에서 한민족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며, 한민족의 생활풍속은 무엇이며 새로운 환경에 버려야할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인 것이다. 당시 1970년대 온양민속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근대교육기관의 재탄생이며 재배치이다. 재기억을 통해 한국인의 민속적 풍습과 가치관을 지키자는 근거이고 그래서 온양민속박물관은 재배치된 기억 아카이빙 시스템, 기억 장치이자 재교육적 목적으로 설계 되어 있는 단일 동선구조의 건축물이다.²⁸⁾ 1970년대 교육적 목적과 한국인 삶의 형태에 대하여 민속학적 접근과 사물들을 구체적 장소/지역 특수성에 맞추어 조직적 구성 체계를 한 민속박물관이다. 온양민속박물관은 지리적 장소선택이 온양지역 연고와 상관없이 계획적 구성으로 한국민족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재현 해 놓았다.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현충사가 있음으로 당시 고등학생들 (70년 80년대 단체수학여행)은 항상 들렀던 역사 학습장소 이었다.(충무공 충효사상과 한국인 한민족 생활풍속에 대한 학습 장소)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가당연시 되는 시대에 재기억 장소로써 온양 민속박물관은 근대 교육시스템

이었다.

② 구술이야기(구술설명)

날짜: 2009.08.10

인터뷰장소: 온양민속박물관

대상자: 신탁근

박물관 시작설명

“한국인의 일생,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삶의 생활을 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우리 생활을 재현 해본 곳입니다. 아들을 얻은 뒤에 낳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에 금줄을 치게 됩니다. 그 금줄에는 고추와 백지가 드리워지게 되고 100일을 맞게 되고 돌을 맞게 됩니다. 돌 위에 차려진 음식이나 물건을 모를 집느냐에 따라서 앞날을 점지해보고 축하를 해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서 공기놀이라든가 연날리기, 팽이치기 또는 설매, 동차들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만 15세가 되면 은 성인식을 치루게 되는데 인생의 첫 관문인 사례 중에 관례를 치루게 됩니다. 긴 머리를 상투를 틀고 초립을 쓰고 초가래, 재가래, 삼가래를 올리고 나면 호폐를 받게 됩니다.이러해서 관례는 모두 끝나고 사회 활동과 더불어 이제 혼례를 올리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일룬지 대사라고 해서 이성지합(二姓之合), 두성이 함께 합쳐지는 것, 또는 백복지원(百福之源), 만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러기를 신랑이 신부어머님한테 전달하는 전안례(奠雁禮)로 모든 결혼식은 끝납니다. 인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차려놓는 사자상이 있는데, 이 사자상에는 물세 그릇과 밥세 그릇 무나물세 그릇 또는 짚신세 켈레, 동전세 낚이 차려집니다. 이 삼이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일직사자와 월직사자, 망자를 저승에 잘 모시고 가라고 후손들이 차려놓는 상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잘 가지도록 모시는 마지막 인생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28) 건축설계당시 (김석철 아카이빙건축사무소) 전시설치방법 (상설전)과 단일관람 동선이 전시물과 건물구조체가 설계당시부터 하나로 설계되었다.

한국인의 인생과정을 통일된 개념으로 적용한 온양민속박물관은 삶의 다양한 형태들이 재 배치되어 있고 한국인의 삶의 생활모습, 한국인의 일생을 연대기적 구성으로 공간연출이 되어있으며 1970년 초에 이러한 민속박물관 형태는 드문 형태이다. 전시 되어진 물건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던 것(공예품)과 일상용품이 같이 전시하였고, 2층에 사농공상 민속생활을 재현한 전시장에는 농어촌 생활도구 용품, 호미, 따비 등 생활상 전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③ 구술이야기(인터뷰)

날짜: 2009.08.26

인터뷰장소: 낙월도 식당 안

대상자: 박명도, 신타근

박명도: 술 2, 노 2, 키 4, 수정, 뜸. 그 충무에서 쭉 모은 것 들이 여기다 있네. 근데 나중에 통구민을 78년에 갖고 왔는데, 그때 영수증 보니까 배 값을 18만원 썼더라고. 거기에는 또 필요한 것들 더 구하고.

신타근: 자 이사진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 변 이쪽 어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박명도: 아... 군대에서 훔쳐 나온 군화신고,

신타근: 예, 모 그거죠... 그때 당시에 그거면 모 최고 이었죠.

박명도: 벨트루바, 공갈반도

신타근: 이 사진이 여기 바로 그 백수도 에서 가져온 따비

박명도: 관철동 옥상이네

신타근: 예, 예, 관철동 옥상 이죠. 그 뒤 보면 박 선생님이 거기다 썬 놔어요. 저 더러 폼 잡으라고 그러고... 예... 기억나십니까?

박명도: 저거 때문에... 이거 인형...

신타근: 예, 만들려고,

박명도: 마네킹 만드는 거 때문에 이렇게 썬 놔는 거야.

신타근: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 그 장철수 선생 ... 그 나하고 놀이하는 장면을

박명도: 밤웃 이지?

신타근: 예, 밤웃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박명도: 그러니까, 밤웃을 전시하는데 그 당시에, 현장감 있게 하려면 우선 놀아 봐야 된다. 장 선생은 항상 주장이 그거야. 모든 먼저 해 봐야 된다.

④ 구술이야기(인터뷰)

날짜: 2009.08.28

인터뷰장소: 신안군 낙월도, / 밭, 최내비 집

대상자: 신타근, 최내비

밭 인터뷰

신타근 선생님: 왜 이렇게 자루가 길어요?

아주머니: 몬디 그걸 잡으당길 랑께. 가까부면 손찍으께

신타근 선생님: 아... 손 찍으니까... 멀리...

아주머니: 이것도 3000원 이어~

신타근 선생님: 아... 3000원씩

아주머니: 대장간에서...

신타근 선생님: 예~

아주머니: 여기는 맨 고령자 노인들만 있으께

신타근 선생님: 예.. 어디 쥐 보세요.

아주머니: 봐요

신타근 선생님: 이거 대장간에서 지금 맞춰 오신 거네.

아주머니: 맞췄지~

신타근 선생님: 이렇게 호미 날이 빠쭈 한가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신한하고 거시기 영광하고는 호미가 또 틀리데요.

신타근 선생님: 틀려요 예, 예,

아주머니: 영광은 호미가 이렇게 넘덕한디 신한에는 이러구 좁아.

신타근 선생님: 영광은 인제 이기 땅이 일궈내는 거하고 다르자나요. 그죠?

아주머니: 몰라~ 우리는~

신타근 선생님: 돌이 많고...

아주머니: 우리는 이 땅을 거시기 쟁기로 갈고, 트랙터로 가는 것 이 아니라 손으로,

신타근 선생님: 내가 여기 왔다 간지가 32년 됐어요.

아주머니: 아... 32년 됐다고...
신타근 선생님: 예~ 이렇게 멀리 메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빼죽하고,
아주머니 : 잘못하면 손가락 찍으께,
신타근 선생님: 잘못하면 손 찍으니깐,
신타근 선생님: 예, 이거 쓰다만 호미는 없어요?
버릴 호미는?
아주머니: 버릴 호미?
신타근 선생님: 예.
아주머니: 버릴 호미도 돈주면 주제.
신타근 선생님: 돈 드릴게요.
아주머니: 아 그러. 한 뺨, 두뺨.. 한... 저 거시기 40센티 될까?
신타근 선생님: 아 그..모...
아주머니: 30센티는 얼마가 30센티냐... 이렇게 해서, 요것이 30 센치여
신타근 선생님: 아 예... 이렇게 해서 반뺨 제는 게... 한 뺨 제고... 이렇게 해서...
아주머니: 아니 그렇게 아니고,
신타근 선생님: 어, 어떻게...
아주머니: 요렇게 제고,
신타근 선생님: 예,
아주머니: 요 가락으로 이렇게... 이것이 30센티랑께. 목척 한자.
신타근 선생님: 아... 요렇게 제고, 요렇게 제는 게 양척 한자.
아주머니: 응 목척 한자 이렇게 하면...
신타근 선생님: 아... 좋은 도량 형법을 아시네. 음... 돈 드릴게 어디 저... 집이 어디예요?~ 집에 가서 좀 하나 사가지고 가게. 쓰던 호미. 우리는 새 호미 보다 쓰던 호미가 좋고...
아주머니: 내가 자락도 맨들었어
신타근 선생님: 어... 자락도... 어... 좋죠...

최 내비 집 인터뷰

아주머니: 66년 되었거든요 진지가... 그러니까 한 50년 살고보니까 낡아서 쥐가 구녕뚱구 히꾸를 했다가도 안된게 이제 양철로 덮

어서 집이 배려부렸어. 이 섬의 집은 높은 것이 아니라 얇게 지어, 바람이 켜. 높이지면 거드친게. 그래서 이러구 해버렸어. 인자 버렸어. 좋은 집이 배려버렸어.

아주머니: 어영간이 밭 매다가 이런 손님들 만나서, 우리 집 소개 좀 해준다고, 잉~ 이렇게 못사는 집, 가난한집에 이렇게 서민들 가난한집. 그렇지? 소개하지 하하하하~ 나는 늙은 사람이라 어디 가서 장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밤날 이라고 왔다 갔다 왔다갔다 운동 겸 하는겨. 38년생이고 이름은 최, 내, 비고. 잉? 내, 비. 높을 최, 내뎃 내(?), 아니 비. 최내비여 내 이름은. 됐어? 하하하하하~ 자 인자 갈 때, 우리 집 잘 되라고 복 빌어 주고 가라고 잉? 그럼 되지.

숙소 인터뷰

신타근: 음... 내일은 어촌 계장님 집에 가봐야 되겠다.

물품노트 메모 : 09-8-28 / 호미 / 5,000/ 낙월도

인터뷰에서 보았듯 호미와 따부 하나도 구입과정에서 사물 고유의 기억과 장소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쓰임을 가지고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고 기억을 담고 있는 사물이 박물관에 놓여 질 때 장소성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박물관에 모여 있는 사물들은 그 자체가 장소를 떠나 온 이주민, 고향을 잃어버린 떠도는 이방인들인 것이다.²⁹⁾ 쓰임의 대상에서 관람 대상이 되어버린 사물들을 해석하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예: 호미는 땅을 필요로 한다)과 구입과정을 재구성한 이유는 버려진 물건과 지워진 삶의 흔적 시간에 이야기를 부여하여 사물의 장소성을 복원 작업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낙월도로 가서 호미를 찾아오는 과정의 재현은 사물에 대한 역사 읽기, 장소 읽기, 사물의 기억 이야기(목소리)³⁰⁾로 장소성의 읽어내기를 한 것이다.

29) 박물관은 약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착취, 식민지, 전쟁후 박물관 안을 채우는 것이다.

30) 박물관의 기록들과 사물은 관계성이 크다. 온양민속 박물관의 사물들은 전체 구입목록을 먼저계획을 하여 구체적 숫자를 계산하였다. 각 지역의특성에 맞추어 사물의수량을 정한 것이다.

⑤ 구술이야기(인터뷰)

날짜: 2009.09.10

인터뷰장소: 종로구 낙원상가 마산아구집

대상자: 박명도, 신탁근

박명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우리가 선택한건 아니 예요.

신탁근: 예, 맞습니다. 예.

박명도: 운명이 우릴 끌어 들었지.

신탁근: 예, 예.

박명도: 근데 지금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신탁근: 예, 좋습니다. 저는 아주 즐거워요~

박명도: 나 같은 사람이랑 또 일해도 좋은 건 아니겠지?

신탁근: 아니요~ 천상 제 해도 천상에 가서 우리 박물관 하나 만들죠, 모.

박명도: 가정 신앙에 그 장독대 앞에 아주머니서 있고 할머니 서있고 그런 그 사진 있지요?

신탁근: 예, 생각납니다.

박명도: 그 내가 대청댐 수물지구

신탁근: 예, 지금 전시 돼 있죠.

박명도: 찍은 사진인데, 그 할머니는 집 안이나 밖이나 집이나 살림살이나 모두 아주 아주 정성 들여서 다듬고, 닦고 그렇게 해서 정돈 되게 삶을 살더라고 요. 근데 그게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라는 개념 어떤 것이 이었나 생각할 때, 참 우리 그 서민들의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얼마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나.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시점 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30년, 32년 동안 지금 온양민속박물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거 보면 또 가슴이 무너지고, 메이지. 우리가 언제 삶을 떳떳하게 재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또 가슴이 메어지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생활 이었거든,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생활 이었는데 그걸 그냥 어떤 미술품이나 어떤 가치 있는 골동품이나 그런 걸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게 우리의 침 생각 아니 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 하더라도 또 그 생각으로 가지고 갔을 거고. 동의합니까?

박물관은 기록의 결과물이다. 근대공간 속에서 재배열된 버려진 사물은 망각된 삶의 행위(호미로 땅을 파고 밭을 일구며 삶을 영위하는 농어민의 인생생활 모습)를 나타낸다. 기억은 역사는 것이 객관적 과학이라기보다 주관적 이야기에 가까우며 장소의 정체성을 기억해내는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³¹⁾ 박물관에 모여 있는 기록 자료들은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록물과 사물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온양민속박물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삶의 기록을 재현하여 정체성을 지키려고 만들어졌으며 근대공간의 재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배열, 재배치된 온양민속박물관에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박물관의 재 기억 장치를 움직이게 하며 박물관을 만든 사람들의 가치시간을 살아있게 하는 거라 하겠다.³²⁾

3-3. 옥포조선소

기업 문화가 국가주도하에 시작하여 대량 노동집약 시스템은 구성원의 정체성을 획일화, 단일화하였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기억과 장소정체성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점은 노동조합(노동자), 회사(관리자), 유니폼시스템, 노동 작업량 계산법, 대규모식당, 작업노동시간, 계량적 성과지급방식, 계량적 작업량, 등 집단적으로 함께 하는 문화에서 단일성, 통일성, 이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방어체계가 이런 상황을 더욱 강조하였다.³³⁾ 서 유럽과 미국 많은 국가 조선소는 문을 닫아 추억이나 과거형으로 19세기 산업사회 형태로 이해하나 옥포 조선소는 전성기를 맞이하여 현재진행중이다. 그러함으

31) 피에르 노라는 기억을 역사와 길등에서 이야기를 통해 그 기억의 장소는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 주장한다.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피에르 노라 Pierre Nora / 김인중 번역 p 305- p308

32) 박물관의 전시연출법으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라 하겠다. 최근경향은 더욱 미디어와 박물관은 상호협력구조로 변한다. 구굴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첨가 하여 구글과 전세계 박물관은 협력구조를 만들고 있다.

33) 조선소작업장 야드에는 모든 것에 우선이 안전제일이다.

로써 옥포조선소는, 장소정체성과 기억을 말하는 과정은 현재 진행의 기업문화와 회사 구성원 변화가 중심이 된다. 이주 노동자층의 다양성, 외국 기업-시장의 다변화 - 외국인클라이언트변화, 기술시장 제품의 다양화 그 이유이다. 그래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장소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장소의 정체성을 고민 하는 부분의 축소판 일 것이다. 거제도 자연환경 장소성 - 근대공간 장소성 - 옥포조선소노동자 기억장소성 -에 대한 장소정체성과 노동자 구성원에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한 시기이다. 40년 전 조선소에 와서 노동자부부로서 삶을 이어간 분들이 장소성을 이해 하는 부분과 새로이 이곳에 도착한 견습 용접공의 인터뷰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서 작업관의 변화와 장소정체성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삶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은 언제나 개인을 구성하는 가족이라는 것과 회사라는 공동체의 환경이 장소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조건인 것을 알 수 있다.

<옥포 조선소>는 국가주도형 조선소를 만들며 성공적 근대화 34)가 만들어진 장소이다.

인터뷰 대상들은 40주년 시 총체극을 함께 만들면서 회사와 노동자는 회사와 개인의 체험을 장소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대공간-조선소-용접공 직업 문화를 구술을 통해 나타낸다. 장소적 정체성과 개인의 기억은 거제도라는 섬과 바다의 자연환경, 근대공간이라는 거대조선소 공간과 개인기억이 서로 함께하면서도 어긋나고 40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근대 공간 이었다. 대단위 노동 집약적 조선소노동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삶을 보낸 용접노동자, 기술 작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미래가 공존하며 함께 장소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인터뷰 하였다.

표 3. 옥포조선소 인터뷰

Table 3. Interview in Okp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항목	날짜	장소	대상
①서사시낭송	2013.09.10	대우조선 해양 해피니스홀	시 낭송극 참여직원
②구술이야기 (인터뷰)	2013.09.21	아파트	어머니 마마리스 합창단원
③구술이야기 (인터뷰)	2013.09.20	사원아파트	정규직 신입사원부 인
④구술이야기 (인터뷰)	2013.09.28	옥포조선소 작업현장	외국인노동 자
⑤구술이야기 (인터뷰)	2013.09.30	기계차 작업 사무실현장	기계차 작업반장
⑥구술이야기 (인터뷰)	2013.09.17	용접견습생 훈련소	용접견습생
⑦구술이야기 (인터뷰)	2013.10.05	용접견습생 훈련소	용접견습생

① 서사시 낭송 총체극

날짜: 2013.09.10

인터뷰장소: 대우조선 해양 해피니스홀

대상자: 조선소 노동자 서사시 낭송

조선강국의 닻을 올리다 1973~1981

1973년 10월 11일/

어머니의 품같이 포근한, 옥포만의 잔잔한 바다 /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이순신 장군의 불같은 호령/

옥포대첩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바다를 가르치는, 이곳 역사의 현장에서

조선강국을 향한, 빅맨들의 대도전이 시작되었다./

아주친의 물길을 바꾸고,

당등산 대밭파로 산을 허물고,

바다를 메운 대역사가 이루어낸, 120만평의 대지 위에/

조선대국을 향한 꿈과 열정은, 활활 불타올랐

34) 작은 옥포어촌에서 시작한 조선소는 세계3위 조선소로 성장한다. 이런 급성장을 근대화신화로 설명한다.

다./
오일쇼크, 조선불황, 공사 중단으로 이어진, 위
기상황에서도/
칠천팔기의 정신으로, 세상의 조선업체가 다 망
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조선소 건설을 위해/
그저 일이 좋아서,
온 몸이 부서지고, 뼈가 닳도록, 자신을 내던진
위대한 빅맨들./

이제 그들은, 믿음직스럽게 서있는, 야드의 수호
신 콜리앗처럼/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향하는,
창의와 도전의 거인이 되어/
오늘도 온세상 바다를, 한껏 품고 있다./³⁵⁾

② 구술이야기 (인터뷰)

날짜: 2013.09.21

인터뷰장소: 옥포조선소 공연연습실

대상자: 31년 근무 조선소 사원

저는 입사가 31년차이고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저도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
꾸로 돌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앞에
달쳐있는 것만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려고만 고
민을 했지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는 사실은 없었
어요. 사실 우리과거에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노사분규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 1대 노조위원
장³⁶⁾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없을꺼예요. 그
고통, IMF그룹해체(대우해체), ³⁷⁾산업은행 소속
해 있었고 그 해 수주가 안 되서 엄청난 고생
등, 산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나 슬기롭게 극복
해 온거죠.

1987 노사분규 났을때 월급을 줄 수 없어서 제
때 받은 사람도 있고 일주일 늦게 받은 사람은
있었어요. 봉급은 제때 나왔으나 이곳이 폐쇄되
어있어서 받는 것은 저쪽 옥포호텔에 가서 월급
을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연 된거죠. 그 이
후 지금까지는 한번도 월급이 밀린적이 없습니
다. 저도 지금까지 한번도 제 월급을 하루라도
늦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기도 해요. 우
리 회사도 직원들에 대한 사랑, 사람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현대는 밀리거나
제때 못 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어는 31년 회사와 자신의 장소적 정체성을 일
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개인적 삶과 회사를 일치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인터뷰에서 돈의 약속, 회사와 노
동자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③ 구술이야기 (인터뷰)

시간: 2013.09.21

인터뷰장소: 아파트

대상자: 어머니 마마리스 합창단원

올해 봄에 이제 창단할 때 창단 멤버로 들어 간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마마리스 로 활동 하는
것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울산은 현대
공화국이고 여기는 대우 공화국이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던게... 다른 직업...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 할 때 다 대우조선 이었어요

하물며 ... 만약 대우에서 일이 생기면 회사랑
학교랑 같이 쉬어줬거든요

그 정도로 대우, 여기 지역 회사가 주축이 되
어서 ...

저희 둘다한푼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했
다 싶이, 달새방에 티비도 없이 결혼식만 달랑
올려서 이렇게 그때 부터 1년은 그때 제일 힘들
었어요. 첫 애기 놓고도 너무 멀리 사니까. 몸조
리 하기도 그렇고.....그래서 ~2주만에 몸조리하
고 다시 생활을 하고 이랬던.. 급여도 그때는 너

35) 40주년 기념식공연의 시 낭송극 대본이다. 아래글 에서 보듯이 집단적 장소성을 강조하고 회사의 가치추구 와 개인의정체성
을 일체감으로 유도 한다

경영혁신, 조직혁신, 기술혁신, 공장혁신,

생산혁신, 품질혁신, 안전혁신, 의식혁신.

혁신과 함께 꽃피었던 따뜻한 정.

회사없이 우리 없고 우리 없이 회사없다.

36) 양동생 위원장 1대 노조위원장

37)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대우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으로 사명이 바뀜

무 작았었거든요. 20만원, 10만원 가져오는.....
적금도 넣고 생활도 해야 하고 그러니깐.. 노사
분교 이후로 급여가 좀 많이 올랐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사회적으로 많이 변화 되
어서 그때부터 좀 풍요로워졌어요

그런 투쟁 할 때,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도 있
었어요. 그때는 조마조마 하면서 데모를, 막 길
거리 나와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회사도
믿고 남편도 믿고 기다렸어요, 오로지 저희 할
수 있는건, 믿고 기다리는 거 밖에 할 수 없었
어요. 대우조선 일하시는 남편분 직원분, 기술력
은른 세계 최고이니까요.

그거가 바탕이 되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믿고
기다렸죠.

가을에 처음으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둘이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사진관 가서 유행이
있었어요.

오 결혼 사진입니다. 저희는 성당에서 혼배미사
를 올렸어요

서로 지금 혼인서약 하는 결혼 사진입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가서 한컷 찾아
이 나와서 안 고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그때 그방인가요?

아주 단칸방에서.....(회사가족사택)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때 사진입니다.
아이 둘 다 대우 초등학교 보냈어요

30년 가족사와 옥포 조선소의 장소정체성을 회사-
가족-개인의 일체감을 부여하는 인터뷰다.

가족구성원인 4인가족, <공간(조선소)- 사원아파트
(가족공간)-개인(가족구성원)> 기억 속(회사-가족 -
개인) 의 일체감이 크게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터뷰이다.

④ 구술이야기 (인터뷰)

날짜: 2013.09.25

인터뷰장소: 사원아파트

대상자: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 부인

20살에 만나서 21살에 결혼했어요.

갑자기 결혼.....식을 못올리고..

친정에서 많은 반대를 했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권유로.. 아버지 조선이.....불항이 없다고.. 그
렇게 하면서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원래는 가진 매장, 가진 제품 같은거 팔았어요.
정직직원 된지는 몇 달 안됐어요, 아직 1년도

안됐어요

큰 변화는 일단 사원 아파트 온게 제일 큰 변화
이고...

사원아파트에서 5년 있으면서 1억은 모을수 있
지 않을까?

저희 이름으로 된 아파트...

⑤ 구술이야기(인터뷰)

날짜: 2013.09.25

인터뷰장소: 옥포조선소 작업현장

대상자: 외국인 노동자

작업반장: “어 땅에 내려 놔”

질문자: 이 작업 하신진 얼마나 되셨어요

외국인노동자: 삼년 삼개월 됐습니다.

질문자: 한국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외국인노동자: 한국에, 3년 10개월 됐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아.....한국말 잘하시네 아주

외국인노동자 : 예 잘하죠

질문자: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외국인노동자: 우즈베키스탄이요

질문자: 한국말 수업은 어디서 배웠어요

외국인노동자: 여기서 배웠습니다.

질문자: 아 공부해가지고?

외국인노동자 :
저기 남문에 가면은 공부할수 있자나요 6개월
동안 여기서 공부 했습니다.

질문자:
작업장 회사에서 가르켜주는 한국말이요?

외국인노동자: 예, 대우 조선에서

질문자:말하는게 부산 사투린데

외국인노동자:
아 이걸, 우리 회사에서 부산에서 온 사람이 많
아서

질문자: 돈은 많이 모았어요?

외국인노동자:
예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5개 샀습
니다.

질문자: 오!

작업반장: 예, 때돈 벌었어요. 때돈

질문자: 5개나 샀어 아파트를?

작업반장: 아무지게 하는 사람들은 돈 벌죠

질문자: 아파트 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드리고
그랬어요?

외국인노동자:
예,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게, 600만원.최고 좋은거

질문자: 그럼 여기 몇 달 일하면 살수 있겠네요

외국인노동자:
예 3개월 동안 일하면 아파트 1개 살수있어요

질문자:
반장님은 3개월 일해서 아파트 못사자나요

작업반장: 아우 평생 벌어도 못사지. 애들 가르키고, 그러기 힘든데

질문자:
한국에서 평생 벌어도 아파트 못사는데..

작업반장:
어떤 친구는 촌에 그 우주백 또, 촌에 사는 땅을 많이 산 친구가 있어

땅을, 장난으로 여기서 저기 안보인다 카데.

외국인노동자:
작년에 우주백 갔다가 우리나라 갔다, 우리 나라6 개월 있다가 다시 올수 있습니다.

질문자: 결혼할 처자는 있어요?

외국인노동자: 예

질문자: 어디 있어요

외국인노동자: 고향에

질문자: 아 우즈백 사람이예요?

외국인노동자: 예 우즈백 맞습니다.

⑤구술이야기(인터뷰)

날짜: 2013.09.30

인터뷰 장소:옥포조선소 기계차 작업현장

대상자:기계차 작업반장

“오 하나님 왜 저에게, 어, 이 혹독한 예, 고통을 주셨나이까 이 대사를 하면” 그때 가 생각이나요.

옛날에 훈련생 때 그 생각은요,

제 나이가 엄청 어렸거든요, 어린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왔었으니깐

부모 곁을 그때 처음 떠난 거였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저하고 똑같은 상황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에,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자나요, 거기서 지금 생활하는게 많고

저역시도 여기에 처음 올때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대려다 주고 가셨어요.

면접보고 저 할때 그리고 훈련소에 입사 할때는 저희 형님이 울산에 사셨는데, 여기까지 대려다 주고, 대우조선 문에 들어가는거 보고 갈정도로..

지금은 이제, 제가 아들을 사실은 중국에 대려다 줬어야 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공항 까지만 대려다 주고 그 이후로는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⑤ 구술이야기(인터뷰)

날짜: 2013.09.30

인터뷰장소: 용접훈련생 훈련소

대상자: 용접훈련생

훈련교육생 1

제가 올해2 8인데,2 8년동안 어머니한테 헤드린게 없다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아들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제일 하고싶은게 뭐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없는데, 일단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다.

훈련교육생 2

일단, 제가 하는거 개월 과정이니깐

잘 해서 자격증 같은거도 꼭 따서

좋은 협력사 들어가서

2년 후에는 직영도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니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깐

모르게 그냥, 어머니가 생각 나더라구요 문득 문득

이렇게 떨어져 보니깐, 어머니한테 가까이 있을때

좀더 잘하고... 음...

좀더 잘하고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좀 할걸... ..

위 인터뷰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설 훈련생 과정 후 협력회사 경력을 쌓아 정규입사를 하는 과정은 용접 노동자의 직업경력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원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조건이자, 사원회 회사가 공동체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회사가 정한 규칙이 개인에게 크게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

국민노동자는 조선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간다. 이러한 다양한 외국인 노동시장과 기존의 장소정체성은- 단일민족 국가관과 충돌한다. 여러 민족구성원의 장소정체성이 옥포조선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어들은 자신의 기억경험을 가지고 옥포조선소 장소성을 설명하였다. 40년전 단일공동체경험에서 복합적 경험으로 조선소의 장소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가족-개인에서 다자간 회사(대우조선-다 협력 회사), 다민족(다양한 노동자 층) 육구의 성장 변화가 근대공간의 형성과정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장소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 하는 것은 기업문화의 핵심 주제와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이다. 장소의 정체성과 구성원의 통일된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서울역>, <온양민속박물관>, <옥포 조선소>, 근대의 공간들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공간들이다. 국가 근대화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교통 공간, 산업 공간, 교육 공간 등 새로운 생산 공간으로 현실화하였고 이는 성공적인 결과물이었다. 근대의 공간들은 장소정체성을 형성하였고 그러한 정체성은 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인터뷰 목소리를 통해 보았듯이 장소의 정체성은 시각 이미지 속의 개념 공간만이 아니라 시각과 촉각, 삶의 총체적 경험의 공간이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정체성 형성의 장소인 것이다. 이는 삶의 공간, 역사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다. 근대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이해하고, 읽어 내리기 위해서는 가치있는 행위와 생명력을 더하는 시간으로의 장소를 재해석하고 역사적 시간과의 상호작용을 이를 때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과정 시간인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세 곳의 근대공간: 장소정체성 이 바뀐 <서울역>, 삶의 기록을 장소에 보존한 <온양민속박물관>, 장소정체성이 변하는<옥포 조선소>를 살펴보았다. 근대공간의 장소정체성은 경험화되고 내재화 된 시간경험이다. 근대공간은 모뉴먼트처럼 죽어있는 기념비가 아니라 새로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기억(장소성)과 이야기(목소리)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억과

이야기를 불러내는 의지와 태도는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행위시간과 기억(장소)를 구술행위를 통한 이야기(목소리)로 부활시키는 동시에 이야기(목소리)를 하계꿈 만드는 시간의 공간화 인 것이다.

근대공간의 장소정체성은 그 안에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공간의 장소정체성이 들어난다. 이러한 목소리를 부여하는 행위가 근대공간 장소성을 새로운 가치로 해석하는 시작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근대공간은 기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시간성, 역사 읽기를 통하여 가변적 리듬으로 장소성과 기억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 이러한 장소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을 이를 때 새로운 장소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 속에서 장소성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재 기능을 다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현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목소리를 찾는 행위는 장소정체성을 지키는 행위일 것이다

근대공간의 장소성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시간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재된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References

- [1] Works [New volumes of z.T. multiple sub-volumes]. Edited by Inka Müller stream and Ingrid Belke, Frankfurt In Berlin. Suhrkamp, 2004 ff The Complete Edition is finished Vol. 1.: Sociology as a science. The detective novel. The Salaried Masses , 2006. Werke [Neun Bände mit z.T. mehreren Teilbänden]. Hrsg. von Inka Müller-Bach und Ingrid Belke, Frankfurt am Main und Berlin: Suhrkamp, 2004 ff. Die Gesamtausgabe ist abgeschlossen Bd. 1: Soziologie als Wissenschaft. Der Detektivroman. Die Angestellten, 2006.
- [2] Bd. 2,1: From Caligari to Hitler. A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German

- Film(Von Caligari zu Hitler), 2012
Bd. 2,1: Von Caligari zu Hitler, 2012.
- [3] Bd. 2,2: The Mass Ornament: Weimar Essays(Studien zu Massenmedien und Propaganda). 2012
Bd. 2,2: Studien zu Massenmedien und Propaganda, 2012.
- [4] Bd. 3: Theory of Film: The Redemption of Physical Reality(Theorie des Films. Die Errettung der äußeren Wirklichkeit), 2008.
Bd. 3: Theorie des Films. Die Errettung der äußeren Wirklichkeit, 2008.
- [5] Bd. 4: History, the Last Things Before the Last(Geschichte - Vor den letzten Dingen), 2009.
Bd. 4: Geschichte - Vor den letzten Dingen, 2009.
- [6] 1971 - 1990 Bd. 1: The Salaried Masses: Duty and Distraction in Weimar Germany (Soziologie als Wissenschaft. Der Detektiv-Roman. Die Angestellten), 1971 (Neuaufgabe 1978)
1971 - 1990. Bd. 1: Soziologie als Wissenschaft. Der Detektiv-Roman. Die Angestellten, 1971 (Neuaufgabe 1978).
- [7] Bd. 2: From Caligari to Hitler. A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German Film(Von Caligari zu Hitler. Eine psychologische Geschichte des deutschen Films. Übersetzt von Ruth Baumgarten und Karsten Witte), 1979(Neuaufgaben 1993 u.ö., zuletzt 6. Auflage 2002).
Bd. 2: Von Caligari zu Hitler. Eine psychologische Geschichte des deutschen Films. Übersetzt von Ruth Baumgarten und Karsten Witte, 1979 (Neuaufgaben 1993 u.ö., zuletzt 6. Auflage 2002).
- [8] Bd. 4: History, the Last Things Before the Last (Geschichte - vor den letzten Dingen). Aus dem Amerikanischen von Karsten Witte, 1971
- [9] Paul Ricoeur < Memory, History, Forgetting>
Memory, History, Forgetting, trans. by Kathleen Blamey and David Pellau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10] Pierre Nora <lieux de memoire>
1984 - 1992: Les Lieux de mémoire (Gallimard), abridged translation, Realms of Mem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1998
- [11] 1999: Rethinking France: Les Lieux de mémoire, Volume 1: The Stat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2] 2006: Rethinking France: Les Lieux de mémoire, Volume 2: Spa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3] 2009: Rethinking France: Les Lieux de mémoire, Volume 3: Lega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4] 2010: Rethinking France: Les Lieux de mémoire, Volume 4: Histories and Memor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